## 2022년 10월 개강 연수(1)

강의 제목		동시대 현장 문학 읽기 : 제철 과일 수확하기	강삭명	김건형 (문학동네 편집위원)	
강의 소개		1. 문예지를 꾸준히 읽는 습관을 기르고 싶은 선생님들과 함께 읽는 연수입니다. 2. 문학잡지 『문학동네』를 만들고 있는 문학평론가와 함께 따끈따끈한 이번 계절의 한국 소설을 읽습니다. 3. 현장 문학 비평을 통해 동시대의 문학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시대 소설의 향방을 파악해봅니다. 4. 잡지의 기획과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국어 교과에 적용해볼 만한아이디어를 나눠봅니다.			
수강생들이 미리 준비하거나 알아야 할 것		연수 전에 의견, 질문, 미니 비평을 미리 주시면 같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수업 일시		넷째 주 목요일(10/27, 11/24, 12/22, 23/1/26) 20:00-22:00			
모집 인원		20명			
수강료		10만원			
커리큘럼	1회차 (10/27)	2022년 여름의 제철 과일 『창작과비평』,『문학과사회』,『자음과모음』.『릿터』등 수록작 5~6편 선정			
	2회차 (11/24)	『문학동네』2022년 가을호 ZOOM IN의 작가론 2편 특집 코너 수록 소설 4편 참조: 크리티컬 포인트, 계간평			
	3회차 (12/22)	2022년 가을의 제철 과일 『창작과비평』, 『문학과사회』, 『자음과모음』. 『릿터』 등 수록작 5~6편 선정			
	4회차 (1/26)	『문학동네』2022년 겨울호 ZOOM IN의 작가론 2편 특집 코너 수록 소설 4편 참조: 크리티컬 포인트, 계간평			

## 2022년 10월 개강 연수(2)

강의 제목		국어 교사를 위한 교양 중세 국어	강사명	김중수 교수	
강의 소개		임용 고사 치고 나서 잠시 잊고 살았던 중세국어를 교양삼아 다시 들춰 보는 연수. 중세 국어 문법 정리와 중세어 자료 읽기. 이제 와서 인터넷 강의 듣기도 그렇고, 졸업한 학과의 교수님한테 쭉 정리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 거 같고, 대학원까지 가서 전공할 건 아닌데 싶지만 그래도 교사로서 이 정도는 알아두고 싶다! 하는 분들을 모십니다.			
수강생들이 미리 준비하거나 알아야 할 것		예전에 임용 공부하던 자료들? 현장에서 중세 국어 가르칠 때 가졌던 의 문들?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수업 일시		네 번째 월요일(10/24, 11/28, 12/26, 1/23) 19:00-21:00			
모집 인원		20명			
수강료		10만원			
커리큘럼	1회차 (10/24)	훈민정음 창제원리와 훈민정음 해례본 훑어보기			
	2회차 (11/28)	중세 문법 정리를 위한 기본 구조 이해 - 질의응답			
	3회차 (12/26)	중세 문법 정리와 중세어 자료 강독 - 질의응답			
	4획차 (1/23)	중세 문법 정리와 중세어 자료 강독 - 질의응답			

## 2022년 10월 개강 연수(3)

강의 제목		신화를 통해 공부하는 내러티브	강사명	엄기호 교수님	
강의 소개		아무리 책을 읽지 않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 신화는 압니다. 신화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매혹적입니다. 신화에는 이야기'됨'이 그 어떤이야기 양식보다 풍부합니다. 신화는 엉뚱한 상상을 한껏 허용하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화는 인간의 삶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고 삶에 대해 경고합니다.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인간에 대해, 삶에 대해, 세상에 대해 말걸기에 신화만한 것이 없습니다. 신화를 통해어린이/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 수 있을까요? 말을 걸기 위해 신화의 구조와 요소, 그리고 활용하는 법에 대해 공부해 봅니다.			
수업 일시		세 번째 화요일(10/18, 11/15, 12/20, 1/17) 19:30-21:30			
모집 인원		20명			
수강료		10만원			
커리큘럼	1회차 (10/18)	1) 창조 - 무엇은 왜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 가?: 생명, 사랑, 자유			
	2회차 (11/15)	2) 영웅신화의 구조와 인간의 성장 과정과 요소에 대한 이해			
	3회차 (12/2O)	3) 인간은 도깨비와 어울릴 수 있는가? - 또깨비 신화와 증여/선물론			
	4회차 (1/17)	4) 악은 왜 매력적인가 - 루시퍼에서 사탄까지			